

# 외국어교육 위한 다양한 의견 듣는다

## 전북교육청, 정책간담회 개최... 격차 완화 등 논의

전북교육청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는 외국어교육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는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층 정경대리 카페에서 영어교육전문가, 도의원, 학부모,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외국어교육 지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있었고, 전북교육청의 외국어지원 정책 방향과 중점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특히 영어교육격차 완화 및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영어학습동기 향상과 기초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 영어표현력 향상을 위한 쓰기·말하기를 위한 다양한 캠프와

학생동아리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관련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과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생지원 사업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유럽어 등 원어인교사 지원, 영어원격화상강의,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제2외국어 지원 등을 통해 외국어 노출과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초·중

등 교사 직무연수, 국외어학연수, 심화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사·학부모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교사, 전문가, 학부모,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학생들이 외국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며 흥미를 잃지 않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며 학력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북·중 접경지역 현장탐방 국외연수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교원의 역사 의식 고취와 평화통일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국외연수를 추진한다. 7월 30일~8월 4일까지 5박 6일간 교원 및 운영진 37명이 북·중 접경지역 현장탐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 접경지역 국외연수는 두만강에서 압록강을 따라 항일 유적지인 용정(운동주 생가, 명동학교)과 이도백하를 거쳐 장백폭포와 백두산, 고구려 유적지인 집안(광개토태왕비, 장군총, 오호보오묘), 단동, 여순(여순간곡, 관동법원구지) 등 독립운동 유적지와 북·중 접경지역 현장체험을 통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평화와 통일의지를 함양하기 위함이다.

특히 단동지역 방문시 조선족 중학교와 대학교 방문 및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전문가와 함께 단동세관, 압록강 북·중 접경지역을 체험한다. 북·중 무역거래인 황금평, 신시가지, 압록강 단교, 신압록강 대교 탐방을 통해 달라진 북·중 경제상황도 체감하게 된다.

이번 국외연수는 최근 3년간 통일교육활동실적과 학생지도실적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와 교장(감)의 비율을 8:2로 선정했으며 ▲교과관련성 ▲연수계획서 ▲평화통일교육활동실적 ▲평화통일교육학생지도실적 ▲기타통일교육추진실적 ▲통일교육 업무담당 등을 기준으로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북·중 접경지역 현장탐방을 통해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를 함양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들의 평화지향적,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키워 아이들의 평화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축산문제 해결 위해 민·관·학·환경단체 한자리에

### 정읍시 과학기술 대토론회 개최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 지자체, 과학자,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29일 오후 2시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예곡축산연구회, (재)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함께 '2019 전라북도 과학기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소통형 예곡축산 기반조성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대 허재영 교수는 농진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정읍시 지원을 받아 수행한 '예곡축산 1차 시범사업이 성공해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종사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재)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유용미생물 생산 기업이 모델 농장인 전북 완주 두지포크 농장에서 3년간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정읍시 농가 대상으로 미생물 제품의 품질 관리와 돈사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돈사 내부 악취 발생 특성과 악취 저감 효과를 평가하고 연구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전북대 동물생명공학학과 심관섭 교수 연구실에서 슬루션 적용 두지포크 육질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29일 오후 2시 정읍시청에서 '2019 전라북도 과학기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종 산물인 돼지고기의 전단력 감소, 지방 산패도 감소, 다가불포화지방산 함유량 증가, 필수 지방산 증가, 고기 맛을 대표하는 리놀렌산 증가 등 육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허 교수는 "현재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초미세먼지 전환을 산출과 동시에 암모니아 저감 솔루션 개발을 통해 축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돈농가에서 미생물제를 매출액 대비 1.43% 투입할 경우 악취 30% 이상 저감, 생산성 3% 이상 향상, 수익 2.25% 향상이 기대된다. 2018년 정읍시 유용미생물 공생과 적용 농가의 경우 암모니아 저감을 31%, 아민류 저감을 27%로 분

석했고, 장 염증지표 약 8% 감소와 PSY 및 사료효율 개선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공인기관 악취물질 평가 결과 유용미생물 공생과 적용 농가는 일반 농가에 비해 악취 기여도가 53%~89%로 낮게 평가됐다. 모든 미생물 모체 이행에 따라 포유자돈 장내에서 균일한 미생물 분포를 보여 개체의 건강성 또한 유지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은 한우 2,004농가, 젓소 93농가, 돼지 118농가, 양계 95농가로 전라북도 축산 생산 두수 점유율 최상위를 자랑하는 전국 2위 축산도시이자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라며, "이 사례를 발전시켜 축산 경영체와 전후방 산업체 간에 전략적으로 제휴해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청정 예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대, 어린이 교육캠프 운영... 오늘까지 접수 가능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학교 캠퍼스 일대에서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어린이 교육캠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접수는 오늘까지다.

이번 어린이 교육캠프는 조별시간(이름표 만들기, 자기소개, 친목도모), 전문분야 티셔츠 만들기, 과학놀이(물고기 잡수함, LED 전등, 쿠키 랩프,

물총 놀이, 레크레이션(협동화 그리기, 도전 골든벨), 요리대회(화분케이크 만들기), 체육대회(이어달리기, 미니게임) 등 다양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캠프는 아이들이 다채롭고 흥미로운 수업 및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 및 협동성을 제고하는 유익한 인기교육 프로그램이

다. 전주교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29명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우영 총장은 "이번 우리대학에서 추진하는 2019학년도 어린이 교육캠프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우리 대학을 찾아줄 초등학교 학생들이 혹여라도 당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점검·대비하고,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코딩캠프로 미래인재 육성을!

### 전주대, RC카 조정 애플·스마트홈 만들기 등 프로젝트 진행

코딩, 로봇 등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코딩교육 의무화가 시작됐고, 학부모들은 앞 다퉈 양질의 코딩교육을 찾고 있다.

전주대학교는 이런 수요에 맞춰 오는 8월(10일, 17일), 9월(4일, 11일, 18일, 25일) 6회 차에 걸쳐 전주대 도서관 및 구이 대덕초등학교에서 무료 코딩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의과학진흥원 호남센터와 협력해 진행되는 코딩캠프는 11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과 학부모, 20팀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코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코딩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IT분야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창의과학진흥원 호남센터 박인선 센터장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실습교육의 특성상 전주대 공과대학 학생들도 보조강사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블록코딩에 대해 배우고, 스마트 휴지통, RC카 조종 애플, 무인 주차함, 온도센서를 통한 선종기 작동 시스템 등을 직접 제작해보며 단계적으로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배우게 된다. 전주대 도서관장 전용석 교수는 "코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는 코딩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님과 함께하는 코딩캠프'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전주대 도서관(063-220-26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9일 교내 교사교육센터에서 SWEET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창의융합 SW캠프(명칭 SWEET 캠프) 행사에 대한 개최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SWEET캠프는 소프트웨어 교육용 창작용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로써 창의적 융합교육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전주교육대학교 교유의 프로그램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SWEET캠프는 페이퍼 크래프트, 우드락 크래프트, EV3를 활용한 모터와 센서를 활용한 코딩, 햄스터 로봇을 활용한 간단한 코딩하기, 어려움을 해결할 구조물 형태 생각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물 만들기, 이야기 비누쓰기 등 다양한 과정이 진행된다. 이번 창의융합SW캠프에서는 창의적 학습을 경험하고 싶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선발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작년 11월에도 SW교육 문제해결 콘서트 개최, 온가족이 함께하는 로봇활용 SW교육 수업캠프 등으로 구성된 'SW교육 한바

## 전주교대, 초등생 대상 창의융합 SW캠프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9일 교내 교사교육센터에서 SWEET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창의융합 SW캠프(명칭 SWEET 캠프) 행사에 대한 개최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SWEET캠프는 소프트웨어 교육용 창작용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로써 창의적 융합교육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전주교육대학교 교유의 프로그램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SWEET캠프는 페이퍼 크래프트, 우드락 크래프트, EV3를 활용한 모터와 센서를 활용한 코딩, 햄스터 로봇을 활용한 간단한 코딩하기, 어려움을 해결할 구조물 형태 생각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물 만들기, 이야기 비누쓰기 등 다양한 과정이 진행된다.

이번 창의융합SW캠프에서는 창의적 학습을 경험하고 싶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선발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작년 11월에도 SW교육 문제해결 콘서트 개최, 온가족이 함께하는 로봇활용 SW교육 수업캠프 등으로 구성된 'SW교육 한바



당'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전주교육대학교 SWEET사업 책임연구자인 홍기천 교수(컴퓨터교육과)는 "SW교육 전문교수, 현장교사와 예비교사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체계화된 SW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고, 코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우영 총장은 개최식에서 "이번 우리대학에서 추진하는 SWEET캠프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의 공학적 잠재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텅키링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SW 관련 역량이 증진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